

삼성·LG ‘월드 IT쇼’서 스마트폰 강자 가린다

국내·외 500개 기업 참가

최신 IT 전략제품 선보여

5G·AI·사물인터넷 체험도

삼성전자가 LG전자가 23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 열리는 ‘월드 IT쇼 2018’에 나란히 참가해 최신 전략제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두 회사 모두 ‘갤럭시 S9’와 ‘G7 씽큐’ 등 자사 핵심 스마트폰 모델과 음성명령으로 가전제품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체계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먼저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갤럭시 S9’·‘갤럭시 S9+’의 새로운 색상인 ‘버건디 레드’와 ‘선라이즈 골드’를 선보였다.

사용자들은 기능별 체험이 가능한 스

마트폰 체험 공간에서 갤럭시 S9 라인의 ▲초당 960개 프레임 속도로 촬영하는 ‘슈퍼슬로우 모션’ ▲주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변하는 ‘듀얼 조리개’ ▲사용자 얼굴을 담은 아바타로 이모티콘을 생성하는 ‘마이 이모지’ 기능 등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2018년형 삼성 QLED TV’도 전시했다.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원본 그대로의 영상을 재현하기 위한 ‘HDR(하이다이내믹레인지) 2000’과 저화질 영상을 업그レード해주는 기능의 ‘인공지능 4K Q 엔진’을 차별성으로 내밀었다.

AI 음성 비서 ‘빅스비’를 연계한 가정용 사물인터넷(홈IoT) 기술도 선보였다.

행사현장에 체험존을 마련해 음성명령으로 TV를 비롯해 에어컨·공기청정기·로봇 청소기 등 가전 품목들과 연결해 제어하는 사용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메탈 디자인에 새로운 발열 제어시스템(Z 에어 쿨링 시스템)을 적용한 ‘삼성 노트북 ‘오디세이 Z’ 및 0.7mm의 얇은 펜촉과 360도 회전 가능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삼성 노트북 펜(Pen)’도 선보였다.

LG전자도 이번 행사에서 스마트폰 신제품인 G7 씽큐를 전시했다.

밝은 햇빛 아래서도 화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 ‘슈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자체가 스피커 울림통 역할을 하며 강한 저음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한 ‘붐박스 스피커’ 기능 등을 차별성으로 소개했다.

또 기존보다 약 4배 밝게 촬영할 수 있는 ‘슈퍼 브라이드 카메라’ 암실 체험실을 조성해, 사용자들이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촬영하는 해당 기능을 직접 경험하도록 했다.

LG전자의 AI 플랫폼인 ‘딥씽큐’도 선

보였다.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를 탑재한 LG전자 인공지능 스피커 ‘씽큐 허브’로, 사용자가 음성명령으로 공기청정기·냉장고·오븐, 세탁기·건조기·스타일러 등을 손쉽게 사용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LG 올레드 TV AI 씽큐’도 전시된다. 이 TV 역시 음성명령으로 화면모드 및 채널을 변경하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월드 IT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국제전시회다.

올해 행사에는 삼성전자가 LG전자 외에 쉐릴 등 국내·외 500여개 기업이 1500여개 부스를 마련해 AI와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기술을 선보인다.

/연합뉴스

KT “로밍 요금 실시간 자동 정산하세요”

블록체인 기술 시간 단축

KT(회장 황창규)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기반으로 ‘실시간 로밍 자동 정산’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활용하면 한 달씩 걸리던 통신사 간 로밍 요금 정산을 발생 건별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고 KT는 설명했다.

실시간 로밍 자동 정산 기술은 통신사끼리 교환하는 사용자 사용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기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검증·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실시간 정산도 가능하다.

‘스마트 계약’은 블록체인 기술로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계약과 거래가 이행되는 디지털 계약 방식이다.

스마트 계약은 계약 조건과 이행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정한 후 이 요소가 충족되면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디지털 계약을 말한다.

KT 관계자는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을 충분히 검증한 뒤 차세대 국제 로밍 정산 체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제안할 계획”이라며 “해외 통신사에 실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산 인프라로 개발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KT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실시간 로밍 자동 정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KT 제공)

‘클릭수 보증수표’ 아이돌 내세운 모바일 콘텐츠

자체 제작 예능 조회수 수백만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이 인기 아이돌을 앞세운 콘텐츠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화제성이 중요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열성적인 팬덤을 발판으로 이용자층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SK브로드밴드의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oksusu)는 21일 자체 제작 콘텐츠 ‘엑소의 사다리타고 세계여행-첸백시 일본편’을 독점 공개했다.

‘엑소의 사다리타고 세계여행’은 옥수수와 SM엔터테인먼트가 함께 선보이는 아이돌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 멤버들의 여정을 담았다.

옥수수와 SM이 앞서 선보인 리얼리티 예능 ‘레드벨벳의 레벨업 프로젝트’는 시즌1과 시즌2 모두 조회 수 100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었다.

KT 올레드tv 모바일도 인기 아이돌이 출연하는 신규 오리지널 콘텐츠 2편을 잇따라 공개한다.

28일 JBT, 위너, 여자친구 등이 출연하는 웹예능 ‘아미고TV 시즌3’에 이어 6월에는 워너원의 단독 예능 프로그램 ‘워너트래블’을 선보인다. 두 프로그램 모두 인기 아이돌이 출연하는 만큼 화제를 모

을 것으로 올레드tv는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피카캐스트의 야식 먹방 예능 ‘엄마가 잠든 후에’도 아이돌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지난 17일 공개된 트와이스 특집 편은 3일 만에 누적 조회 수 180만건을 기록했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아이돌 그룹은 단기간에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아이돌의 주된 팬층인 10~20대는 모바일 동영상 주시청층과 겹친다. 나스미디어의 ‘2018 인터넷 이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대와 20대의 모바일 동영상 시청 시간은 각각 90.5분, 63.8

분으로 평균(52.4분)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K팝 열풍에 힘입어 아이돌 팬층이 해외로 확대되면서 아이돌 마케팅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효과적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의 글로벌 동영상 라이브 플랫폼 ‘브이라이브’다. 브이라이브는 방탄소년단을 앞세워 해외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브이라이브 방탄소년단 채널의 팔로워는 채널 중 최다인 910만명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 이용자다.

방탄소년단 채널의 동영상 누적 재생 수는 7억건을 넘었다. 지난 18일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컴백 프리뷰쇼 역시 이틀 만에 조회 수 500만건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우주서 물의 흐름 관찰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그레이스 포(Grace-FO)’를 실은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렸다. ‘그레이스-포’는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를 우주에서 수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비한 오로라 세계’ 26일 광주과학관 특강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이 오는 전체투영관 특별 프로그램 ‘오~라! 오로라 콘서트’를 개최한다.

국립광주과학관 전체투영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26일 오후 1시 30분과 3시 30분, 2차례 진행되며 남성듀오 BoK(비오케이)의 공연으로 시작한다.

이어 천체사진가 권오철의 오로라 특별 강연이 진행된다. 권오철 작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체사진가로 세계 유명 천체사진가로 구성된 TWAN(The World At Night)의 일원이다. 오로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그의 특별강연은 환상적인 오로

라 사진을 찍기 위한 그의 노력과 여정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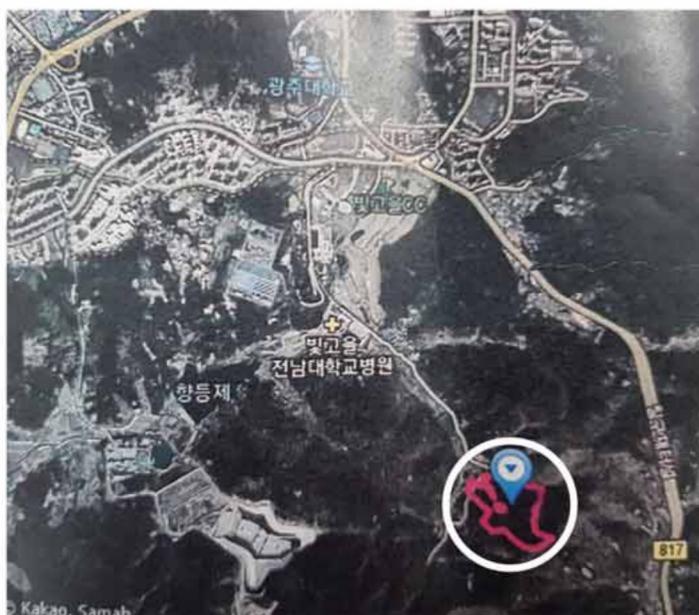
행사의 마지막은 ‘생명의 빛, 오로라’가 장식한다. 영상을 통해 밤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와 더불어 6월 3일까지 곤충을 주제로 한 소규모 특별전 ‘나뭇나뭇 나비 이야기’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원기(전 생물방제연구원 곤충바이오텍터 연구원)씨가 증정한 곤충표본 5000여 점 중 봄에 어울리는 나비 목을 선별해 전시했다. 문의 062-960-6172.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70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20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최고 투자물건입니다※